

이진경 프로필

[개인전]

2020 <The Black: 진경>,헤이리갤러리움, 파주

2019 <Project: BLACK after home sweet home>, 갤러리노마드, 여수

2017 <Home, Sweet Home>,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단체전]

2020 <2020 예술하라 - 충주>, 168 아트스퀘어, 충주

2020 <2020 예술하라 - 서울>, 팔레드서울, 서울

2020 <Photospace UM 개관전>, 사진공간 움, 수원

2020 <RAW Gallery & Studio>, RAW Gallery, 파주

2020 <사물과 정신>, 류가헌, 서울

2018 <얼굴보다 작은>, 아트스페이스 플라스크, 서울

2016 <2016 POST PHOTO>,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2015 <틈>, 자문밖문화충전소, 서울

[이력]

2018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메타디자인학부 사진전공 석사 졸업

199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디자인전공 학사 졸업

[Contact]

Email : cqcooa@naver.com

H.P. : 010-4330-8257

盡景山水 - 일회성으로 재구축된 비밀의 풍경



盡景山水(진경산수)는 언뜻 보면 익숙한 한 폭의 수묵 산수화다.

익숙한 산수화에 시선을 고정하자 번들거리는 플라스틱 비닐봉지의 광택 속으로 풍경은 밀려나고 곧 검은 비닐봉지가 드러난다. 오랜 시간 자연이 만든 풍경과 유한한 시간을 가진 인간이 만든 오브제가 서로 섞이고, 서로를 밀어낸다.

검은 비닐봉지는 일회성과 익명성을 가진 존재다. 무엇인가 잠시 감추고 담았다가 다시 활용하지 못하고 버려진다. 철저히 일회성을 위해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물질인 것이다.

유한한 시간을 가진 인간이 아이러니하게도 자연에서 분해되는 데 수 백 년이나 걸린다는 물질을 만들어 순간을 위해 대량으로 만들어내서 소비하고 자연에 숨기고 안 보이는 척한다.

비닐봉지라는 일회성을 가지고 태어나 쉽게 버려지는 소멸하지 않는 오브제로 영원의 시간을 담은 풍경을 만들었다.

일회성의 오브제로 재구축된 盡景山水 (진경산수)는 검재 정선이 그리고자했던 실재 풍경인

眞景山水(진경산수)가 아니다.

산과 들, 해변의 어딘가에 플라스틱 폐기물이 자연을 대치하며 오늘도 새로운 플라스틱 지형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것이 오늘날의 眞景山水(진경산수)인 것이다.

검은 비닐봉지로 만들어진 풍경이 인간이 자연 속에 숨겨둔 비밀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다.

<Black>



검은 비닐봉지는 ‘감춤’과 ‘비밀’의 표상이다.

자신의 무엇을 품고 있는지 감추고, 입을 꼭 다문 채 비밀을 안고 버려지기도 하고, 숨겨지고 잊혀지기도 한다. 우리는 왜 그 연약하고 못생긴 검은 비닐봉지에 물건을 담아야 안심이 될까? 그것이 자꾸 내 삶으로 스며들어 쌓여갔다. 그리고 나는 그 검은 비닐봉지에 나의 기억과 시간을 담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그것을 열어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하고, 지나간 따뜻한 기억을 소환해내기도 한다.

우리는 왜 검은 비닐봉지에 물건을 담고 안심을 할까? 군중 속에 검은 패딩으로 나를 숨기고, 너와 내가 구별하기 힘든 익명성 속에서 우리는 편안함을 느낀다. ‘튀면 안된다’ 오랫동안 들어온 말이다. 누군가의 손가락질을 받으면 위험하다. 저 사람이 반역자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만으로도 죽음을 의미하던 시절이 있었다. 내가 누군지 숨겨야 한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숨기기 위해 내가 가진 것도 숨겨야 한다.

내가 조금 전 약국에서 산 약도, 꼭꼭 숨겨둔 비상금도, 핏물이 고인 고깃덩어리와 머리가 잘린 생선의 몸뚱아리처럼 숨겨야 한다.

검정 비닐은 주로 음식물을 사면서 내 삶 속으로 들어왔지만 내 삶에서 떠날 때는 음식물 쓰레기나 타인에게 들키기 싫은 물건을 담고 사라지는 유용한 물건이다. 그런 검정 비닐봉지가 불편한 오브제로 발견된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던 엄마의 냉장고를 비워냈을 때였다. ‘검정 비닐봉지’들이 언제 산지 기억나지 않는 고깃덩어리, 미이라처럼 말라비틀어진 생선, 해묵은 고춧가루 같은 화석화된 것들을 토해냈다. 엄마는 ‘다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왜 버리냐’며 다시 냉동실로 밀어 넣었다. 다시 냉장고 구석으로 웅크리고 앉은 검은 덩어리는 거기가 원래 자기 자리인 듯 몸을 숨겼다.

그렇게 삶의 한구석에 비밀을 담고 숨어버린 검은 비닐봉지는 길거리에서도 발견됐다. 비밀을 품고 버려지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아파트 그늘진 담벼락 아래에도 공원 벤치 아래에도 도로 위에도 무언가 품고, 그리고 무언가 품었다가 토해버린 껍데기처럼 버려졌다. 그것이 마음에 새겨진 후로 나는 시커먼 비닐봉지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검은색의 불투명이 지니는 속성, 그것은 검은 내부로 기억을 삼킨다.

자기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감추고, 입을 꼭 다문 채 누군가 열어보기 전까지 구석에서 홀로 잊혀진다. 검정 비닐 속에 담긴 기억을 분실하고 은밀히 파묻는다.

‘검은 비닐봉지’는 잊혀지고 싶은 비밀을 담은 시간의 기억이기도 하다.

2020. 10. 이진경

<HOME, SWEET HOME>



이 작업은 무엇을 기록하든 ‘기록은 의미를 만든다’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피사체의 이미지가 누적되면서 사진은 그 밀도를 통해 스스로 의미를 드러낸다. 장바구니를 가득 채워오던 식료품의 포장재를 분리수거를 위해 모으다가 문득, 내용물의 부피만큼 차지하는 이 폐기된 포장재가 모이면 어떤 의미를 드러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작업은 그야말로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것이다. 폐기물이 된 포장재를 모으고 사진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처음 몇 달 동안은 이 사진일기가 어떤 구체적 의미를 만들어낼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1년의 기한을 정하고 출발한 이 작업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애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2015년 9월에 시작한 작업은 의도치 않게 평범하지 않은 시간으로 채워졌다.

그 기간 첫째 아이는 대입수능시험을 봤고, 아버지는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다. 자퇴를 고민하던 둘째 때문에 이사한 곳에서의 생활은 모든 게 낯설었다. 게다가 다시 시작된 직장생활로 삶이 매우 분주해졌던 것이다. 생활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음식에서부터 나타났다. 아이들은 엄마가 없는 집에서 조리하기 쉬운 라면이나 배달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병환이 위중해지고 회사 일이 바빠질수록 집안에는 더 많은 가공음식의 비닐봉지가 쌓여갔다. 그것들을 모아 작업하는 동안, ‘라면의 이미지’를 숨기고 싶은 가정주부로서의 나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숨겨졌지만 숨길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라면 봉지가 쌓인 어느 달, 아이들에게 밥 한 끼 제대로 챙겨먹이지 못하고 있는 내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계획한 1년의 시간이 지나자 명징하게 나타난 것은 라면봉지로 드러난 삶의 고단함이었다. 하루 벌여 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도시빈민의 삶과, 경제적으로 별 부족함 없는 나의 삶을 함께 관통하는 것은 고단한 시간을 버텨준 라면의 존재였다.

시간의 기록은 그렇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현실들을 또렷하게 드러냈다. 이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그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이 그렇게 많은 라면과 배달음식을 먹으며 지낸 사실은 기억에서 희미해졌을지도 모른다. 대량으로 모인 라면봉지는 나의 1년의 자취였다. 나는 그것을 모아 화가가 물감을 덧칠해 그림을 완성하듯이, 시간과 일상의 흔적을 중첩해 이미지를 완성했다. 숨길 수 없었던 나의 시간의 흔적이 모여 붉고 노랗고 검은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숨기고 싶고 당혹스럽기만 했던 나의 시간의 흔적, 라면봉지를 꽃처럼 피워올리며 후련함을 느낀다. 너무나 익숙한 그리고 그리운 Home, Sweet Home...